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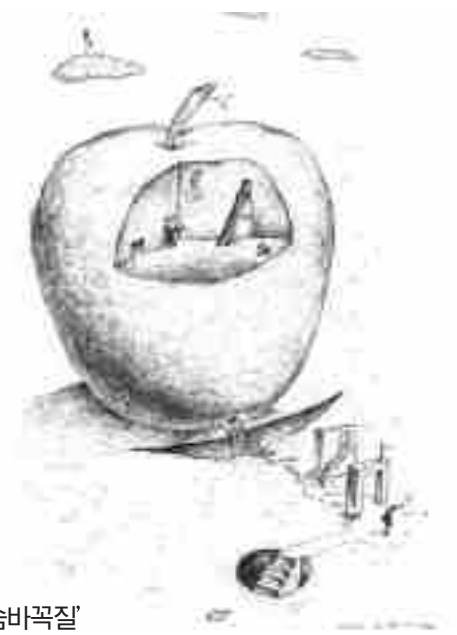
박승모 작가가 고흥 남포미술관에 기증한 '색소폰'



박승모 작 '이삭줍기'

‘시간 여행자’의 즐거운 상상력

위재환 전, 28일까지 강진아트홀



'숨바꼭질'

‘몽상가가 꿈꾸는 상상의 세계.’

길게 늘어난 건물, 허공을 향해 뻗은 계단 등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상상하게 하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위재환 작가의 조각 작품을 보고 있으면 저 상상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라는 생각이 든다.

‘몽상가’ 위재환 작가 초대전이 오는 28일까지 강진아트홀에서 열린다. ‘시간 여행자(Time traveler)’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전공인 조각 작품 대신, 드로잉 작품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프로젝트다. 작가는 “이번 전시가 회색도시 속에 잠겨 있는 몽상가와 함께 떠나는 서투른 여행의 출발”이라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

제약이 따르는 입체적인 조형물 대신, 종이 위에 자유롭게 상상의 나라를 펼친 이번 드로잉 작품은 그가 꿈꾸는 환상의 세계를 훨씬 더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준다. 거대한 사과 속에는 상상의 도시가 펼쳐지고, 주전자에 뿜어내는 연기를 따라가면 미지의 세계가 당선을 기다린다.

또 하늘을 마음껏 나는 고래, 무게 구름 위에 나무를 심는 거대한 남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성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 상상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소녀의 모습 등도 만날 수 있다. 특히 그 어디에도 없을 듯한 독특하고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들은 신비롭고 몽환적인 느낌을 준다.

“자주 어른이 되어가는 듯해” 조바심을 느낀다는 작가는 “드로잉이 또 다른 시작과 시간 여행자의 행보를 정해주는 출발이기를 바란다”며 “마음은 하늘 위 구름의 흐름을 따라 또 다른 여행을 떠난다”고 말한다.

조선대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한 위 작가는 광주시미술대전 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남도조각가협회, 백악조각가회, (사)현대미술 애호가 회원 등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시골미술관’과의 10년전 약속 지킨 세계적 조각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조각가가 10년전 ‘시골 미술관’과의 약속을 지켰다.

폐교를 리모델링해 문을 연 고흥 남포미술관(관장 박형수)에 최근 경사가 있었다. 개관 당시 화제를 모은 서울 한남동 ‘구찌 가옥’ 외관을 제작하고, 영화 ‘기생충’에 등장해 화제가 됐던 작품을 만든 박승모 작가가 아무 조건 없이 대작 2점을 미술관에 기증·설치한 것.

박 작가와 미술관의 인연은 지난 2011년으로 올라간다. 조각가 7인이 참여한 ‘움직이는 예술 마을’전에 참여했던 박 작가는 이후 2013년 개인전 ‘환(幻)’을 통해 다시 남포미술관에서 전시를 진행, 인연을 이어갔다.

박 작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남도의 소박한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가진 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고, 전시를 마치고 떠나며 “기회가 닿으면 작품을 한 점 기증하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박 작가의 작품이 너무 좋았던 박 관장은 내심 기뻐했지만 믿기지 않아 당시에는 설마 이게 이루어질까 하는 마음이 더 컸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박 관장에게 한 통의 전화

박승모 작가, 고흥 남포미술관에 ‘색소폰’ ‘이삭줍기’ 기증
“지역 미술관 활성화 도움”... ‘구찌 가옥’, 영화 ‘기생충’ 작업

가 걸려왔다. “지금 구찌가옥 작업을 진행중인데, 이 작업이 끝나면 남포미술관에 기증할 작품을 제작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올 3월 현장 답사를 온 박 작가는 당초 미술관 정원에 대형 조각 작품을 설치하기로 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미술관 실내에도 작품을 놓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장 답사 결과, 관리 문제 등을 감안해 당초 11m 정도로 구상했던 작품의 규모를 줄이는 대신, 또 다른 작품을 기증하기로 하고, 5개월여에 걸친 제작·설치 과정을 통해 최근 공개했다.

미술관 정원에 설치된 ‘색소폰’은 스테인리스 와이어로 색소폰의 형상을 구현한 크기 400×220×70cm, 무게 약 1.5t에 달하는 대형 입체작품이다. 실재와 허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을 와이어 중첩을 통한 명암의 대비로 표현해낸 밀레의 ‘이삭줍기’ (230×470×10cm)는 평면 철

망 조각작품으로 박 작가의 작품으로는 국내 미술관에 설치된 작품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박 관장은 설치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박 작가가 보여준 ‘태도’에 감동했다.

“아무 대가도 없이 재료비만 큰 돈이 드는 작품을 몇날 며칠 제작하는 스탭과 작가님께 식사 한끼를 대접하려해도 모두 거절하셨어요. 설치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박승모 작 '마야 2078'

가 완료된 후 작은 기념식을 열겠다는 것도 마다 하셨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데 도움이 되고, 언제나 뒤에서 지켜보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고 다른 것은 아무 것도 필요치 않다고 하더군요.”

경남 산청 출신으로 동아대 조소과를 졸업한 박 작가는 독일과 미국에도 작업실을 두고 있으며 그의 작품은 미국 나이키 본사 로비에도 설치돼 있다. 또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 등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에서는 이선균·조여정 부부 거택 거실에 걸린 스테인리스 스틸 메시로 몽환적인 숲의 모습을 그린 ‘마야 2078’를 선보이기도 했다.

박 관장은 “서울 우수 미술관이 아닌, 시골의 미술관에 작품을 기증하는 걸 두고 주변에서 의아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전해들었다”며 “늘 뒤에서 지켜보겠다는 작가님의 마음을 새기고, 소중한 작품을 기증해준 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좋은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혁, 쇼팽 콩쿠르 결선... ‘제2의 조성진’ 나올까

세계 3대 피아노 콩쿠르...8개국 12명 경쟁 21일 발표

피아니스트 이혁(21·사진)이 제18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이하 쇼팽 콩쿠르) 결선에 진출하면서 조성진에 이어 또 한명의 한국인이 우승을 차지할지 기대를 모은다.

러시아 차이콥스키 콩쿠르,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피아노 콩쿠르로 꼽히는 쇼팽 콩쿠르가 지난 2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막해 결선경연을 앞두고 있다.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쇼팽 콩쿠르는 1927년 시작했으며 쇼팽의 고향인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린다. 16~30세의 젊은 연주자들로만 참여할 수 있는 대회로 쇼팽 작품으로만 대회를 치른다. 세계의 수많은 콩쿠르 중에서도 유독 스타를

많이 배출하는 대회로 유명한데 마우리치오 폴리니, 마르타 아르헤리치, 크리스티안 지메르만,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 당 타이손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콩쿠르는 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돼 6년 만에 열린다.

한국 피아니스트가 쇼팽 콩쿠르 결선에 진출한 건 2005년 임동민·임동혁·손열음, 2015년 조성진에 이어 다섯 번째다. 조성진은 당시 만 21세 나이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고, 임동민·임동혁 형제는 공동 3위에 올랐다.

조성진은 2015년 쇼팽 콩쿠르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아시아인으로서는 3번째로 우승을 차지했다. 더불어 콩쿠르 위너스 갈라 콘서트 투어와 더불어 클래식 레이블 도이치 그라모폰을

통해 쇼팽 콩쿠르 실황음반을 발매했다. 이 음반은 국내의 10만 장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며 히트했다.

이번 콩쿠르에는 500여 명이 지원해 총 96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 진출한 한국인은 가주연·김수연·박연민·박진형·이재운·이혁·최형록 등 7명이며, 중국(23명), 폴란드(21명), 일본(16명)에 이어 4번째로 본선 진출자를 많이 냈다.

결선에는 한국의 이혁을 비롯해 이탈리아(2명), 캐나다(2명), 폴란드(2명), 일본(2명), 스페인, 러시아, 중국 등 8개국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결선 심사 결과는 마지막 연주가 끝나는 20일 오후 6시 이후(현지시간), 한국 시간으로 21일 새벽 1시에 나올 예정이다.

이혁은 3살때부터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배우



기 시작했으며 16세에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음악원에 입학해 현재 블라디미르 오펜니코프 교수를 사하고 있다. 그는 리틀 모차르

트 콩쿠르(2009)를 시작으로 모스크바 국제 청소년 쇼팽 콩쿠르(2012) 폴란드 파데레프스키 콩쿠르(2016)에서 우승했다.

예선을 비롯한 경연 전 과정은 쇼팽 국제 콩쿠르 모바일 앱과 유튜브 ‘쇼팽 인스티튜트’ 채널로 생중계되고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소버지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0420 공기청정기 (138평)
DAP-0420A/JWG

5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